

가톨릭 대학과 가톨릭 정체성

- *Ex Corde Ecclesiae*를 중심으로 - *

최 준 규

가톨릭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가톨릭 대학의 정체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오늘날 한국의 가톨릭계 대학들은 교육의 효과성, 연구의 수월성, 경영의 효율성 등에서 다른 대학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며 우월한 지위를 담보하는 목표 외에 ‘가톨릭’ 정체성을 보존하고 증진시킬 책무를 지니고 있다.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헌장인 『가톨릭대학교를 위한 교황령(*Ex Corde Ecclesiae*)』은 세계의 모든 가톨릭 대학들의 정체성을 천명하면서, 가톨릭 대학이 지닌 고유한 본질과 특성 그리고 사명에 관하여 신학적인 원칙을 범조문 형태로 제시하였다.

가톨릭 대학은 본질적으로 진리추구, 진리전달, 진리적용의 ‘일반적’ 성격 외에, 교회의 사명인 신앙적 조명과 교회 가르침에 따라 교육·연구·봉사의 기능을 수행할 ‘교회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러한 본질적 성격은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가톨릭 대학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낸다. 그 특성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1) 가톨릭 대학은 그리스도교적 영감으로 충만해야 하고, (2) 교육, 연구, 봉사가 신앙의 조명 안에서 이루어지며, (3)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을 존중하고 따르고, (4) 인류의 초월적 유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또한 가톨릭 대학은 자신의 고유한 본질과 특성에 의해 일반 대학과는 다른 측면의 봉사를 실천하는데, 교회와 사회에 대한 봉사, 사목적 봉사, 문화와의 대화, 복음 선교 등이 그것이다.

핵심 주제어: 교황 요한바오로 2세, 가톨릭 대학의 정체성, 대학의 본질, 대학의 특성, 대학의 사명

*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정착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I. 서 론

오늘날 대학의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세계 경제가 그러하듯, 대학들 간의 경쟁은 국경을 넘어 점차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세계 유수한 대학들은 해외에 캠퍼스를 만들고 자신의 선진적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현지 학생들을 유치하는 이야기는 이제 고전에 가깝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미국의 University of Phoenix, 영국의 Open University, UN의 무료 대학인 University of People 같은 소위 온라인 대학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의 학생들을 유치하는 한편, MIT 외 미국의 명문대학들은 세계의 모든 이들이 인터넷으로 자신의 학교에서 벌어지는 최고 수준의 수업을 볼 수 있도록 강의들을 공개하고 있다. 이제 세계의 대학들은 국경의 한계를 넘어선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 간의 경쟁 역시 만만치 않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명문대학이라는 명성과 기득권을 쥐고 있는 이른바 일류대학들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단 없는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의 후발 대학들 역시 너나할 것 없이 치열한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국내 대학들의 경쟁은 정부의 막대한 고등교육 정책과 지원금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각종 대학 관련 정책을 내어놓고 이를 대학들을 유도하기 위해 막대한 고등교육 지원금을 활용하여 왔다. 예를 들면, 국내 대학들의 국제적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BK21사업,’ 지방 대학들의 발전을 위한 ‘누리사업,’ 연구 중심을 벗어나서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교육역량강화사업’과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사업,’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약학대학 및 약학전문대학원 같은 대학 및 대학원 신설 사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들 사업에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 조원에 이르는 정부 지원금을 배정하여, 이를 선점하기 위한 대학들의 전쟁터 같은 각축전이 벌어졌다.

가톨릭 대학¹⁾ 역시 오늘날의 급격한 사회 변화와 치열한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가톨릭 대학이 다른 대학들과 현실세계에서 경쟁하여 학문적·사회적 명성을 획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톨릭 대학은 일반 대학으로서 다른 대학들과 경쟁을 하면서 동시에 가톨릭 대학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대한 과제를 지니고 있다. 가톨릭 대학의 정체성이란 가톨릭 대학의 교육 목적과 행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톨릭의 특성(Catholic characteristics) 혹은 가톨릭 학교들의 설립 이념과 근본적 교육 목표를 규정하는 가톨릭의 성격(Catholicity)을 의미한다.²⁾ 정체성은 학교를 구성하는 일종의 내적 연결 축으로서, 학교의 본성, 역

1) 이 글에서 언급되는 ‘가톨릭 대학’이란 용어는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Ex Corde Ecclesiae)』의 ‘가톨릭 대학교’와 동일한 용어로서, 특정 가톨릭계 대학(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계 대학교’ 일반을 의미한다.

사, 문화, 그리고 경험(좋은 것과 나쁜 것)을 포괄하며, 곧바로 학교의 설립이념, 교육방법, 교육과정, 교육자의 역할을 규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안이다.

가톨릭 대학의 정체성은 다음과 같은 질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연 가톨릭 대학의 본질은 무엇일까? 가톨릭 대학들을 ‘가톨릭답게’ 만드는 특성은 무엇인가? 가톨릭 대학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글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되며, 이 글의 목적은 가톨릭 대학들의 정체성과 그에 기초한 교육 이념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한국의 가톨릭 대학을 현실 상황을 먼저 요약하고, 본 연구의 기초자료인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Ex Corde Ecclesiae*), 1990』³⁾의 작성 배경과 개관을 기술한 후, 가톨릭 대학의 본질, 특성, 그리고 사명에 관하여 논하기로 한다.

1. 한국의 가톨릭 대학의 현황

현재 한국에는 11개의 가톨릭 대학들이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대체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가톨릭대학교(서울대교구), 인천가톨릭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안동교구), 서강대학교(예수회),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청주교구) 등이다. 이들 중 사제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신학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은 처음 7개 대학교들이며, 나머지 4개는 일반 학생들만을 교육하는 대학교들이다.

2008년 12월 말 현재,⁴⁾ 가톨릭 대학에는 학생 41,283명, 교수 1,491명이 활동하고 있다. 교수들 중 가톨릭 신부 및 수도자의 비율은 14.0% 혹은 208명이며, 가톨릭 신자인 교수의 비율은 39.1% 혹은 583명이다. 한편 가톨릭 신자인 학생은 19.1% 혹은 7,904명이다.

가톨릭 대학에서 가톨릭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도 전국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인 9.9%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표 1>은 3년 주기로 가톨릭 대학 내 신자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
- 2) 가톨릭 대학의 정체성(identity)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해설은 M. J. Buckley, “The Catholic University and the Promise Inherent in its Identity”, Langan & O’Donovan (eds.), *Catholic Universities in Church and Society: A Dialogue on Ex Corde Ecclesiae*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1993), pp.84-85를 참조.
 - 3)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 최영철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63(1990/12), 58-72쪽; 혹은 『가톨릭 신학과 사상』 16(1996/여름),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31-256쪽을 보라. 이 문헌은 1부 정체와 사명, 2부 일반적 규범으로 구성되며, 이 글에서는 1부와 2부를 각각 ECE I, ECE II로 표시하였다.
 - 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년 한국 천주교 통계』(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5), 38, 46쪽.

〈표 1〉 가톨릭 대학 내 신자비율의 연도별 추이(%)

년도	1997	2000	2003	2005	2008
성직·수도	15.2	15.0	12.8	16.3	14.3
교수	39.0	40.6	36.5	40.0	38.5
학생	35.9	18.5	19.8	23.2	19.4

출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한국 천주교회 통계』 (www.cbck.or.kr).

* 가톨릭계 전문대학을 제외한 통계임.

** 교수 수는 성직자, 수도자 교수를 제외한 수임.

〈표 1〉에 의하면, 가톨릭 대학 내 성직자·수도자 교원의 비율은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신자 교수의 비율 역시 약간의 등락을 보이지만 대체로 비슷하다. 단지 신자 학생의 경우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1997년에서 약 36%였던 것이 2000년에 18.5%로 급감한 이후, 약간의 상승이 있다가 2008년에는 19.4%에 머무르고 있다.

〈표 2〉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국내 가톨릭계 대학교 신입생들의 종교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보면, 가톨릭대학교의 경우 가톨릭 신자 학생의 비율은 5년 평균 31.0%로 가장 많고, 개신교 21.8%, 불교 5.5% 순이다. 서강대의 경우, 개신교 학생의 비율이 23.6%로 가장 많고, 가톨릭이 21.1%, 불교 8.3% 순이다. 대구가톨릭대학교의 경우, 불교가 19.9%로 가장 많고, 가톨릭 18.4%, 개신교 18.0% 순이다.

〈표 2〉는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사항들을 보여준다. 첫째, 3개 대학의 가톨릭 신자 학생의 비율은 전국 평균 신자 비율에 비하면 매우 높은 것으로, 이는 신입생 당사자나 그들의 학부모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대학의 종교적 요소를 상당히 고려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2〉 가톨릭 대학 신입생의 종교 분포(%)⁵⁾

대학명	입학연도	가톨릭	개신교	불교	기타	무종교
가톨릭 대학교	2003	34.9	23.3	5.4	3.9	32.4
	2004	29.7	21.5	5.8	4.0	36.5
	2005	31.9	21.7	5.7	3.2	37.5
	2006	29.5	20.8	6.0	2.6	41.1
	2007	28.8	21.8	4.4	2.6	42.3
	5년 평균	30.1	21.8	5.5	3.3	38.0
서강 대학교	2003	19.7	24.0	10.1	1.6	44.6
	2004	22.1	24.4	8.1	1.6	43.7
	2005	23.1	23.0	8.4	-	45.4
	2006	19.9	24.7	8.6	2.5	44.3
	2007	20.6	22.0	6.4	2.5	48.5
	5년 평균	21.1	23.6	8.3	2.1	45.3

대구 가톨릭 대학교	2003	19.1	19.1	21.5	1.5	38.8
	2004	-	-	-	-	-
	2005	18.5	18.8	20.9	0.8	41.0
	2006	18.6	18.2	19.2	1.3	42.7
	2007	17.4	15.8	18.0	1.0	48.2
	5년 평균	18.4	18.0	19.9	1.2	42.7

둘째, 3개 대학의 가톨릭 신자 학생의 비율은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감소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비록 <표 2>에 나타난 서강대의 경우, 5년 동안 가톨릭 신자 신입생의 비율(19~23%)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은 듯 보이지만, 최근 『2008년 한국천주교회 통계』에 따르면 가톨릭대학교와 서강대학교의 재학생 신자 학생의 비율은 평균 16.9%로 뚝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가톨릭 신자 학생의 비율의 감소와는 대조적으로 무종교 혹은 ‘종교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어느 대학교를 막론하고 가파른 증가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학 입학 연령인 20세 전후의 청년들이 보여주는 비종교성 발달 특성을 반영하거나 혹은 기존 전통과 권위에 거부감을 보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일 수 있겠으나, 재학생의 절반에 육박하는 ‘무종교’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본다.

<표 3>은 가톨릭 대학 내의 신자 교수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8년 전국 가톨릭 대학 내 신자 교수 비율은 38.5%였다. 서울대교구 내에 소재한 가톨릭대학교와 서강대학교는 약 32%의 교수들이 가톨릭 신자로서 전국 평균보다 약 7% 낮았고, 반대로 대구가톨릭대학교의 경우는 54.7%로 월등히 높았다. 이는 대학 내 신자 교수의 비율은 비신자 교수들에 비해 여전히 낮으며, 가톨릭 대학들이 가톨릭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3> 가톨릭 대학 내 신자 교수 비율(%)

	1997	2000	2003	2005	2008
전국	39.0	40.6	36.5	38.3	38.5
서강대/가톨릭대학교	35.0	40.0	30.0	33.4	31.9
대구가톨릭 대학교	49.7	50.5	48.4	53.0	54.7

출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한국 천주교회 통계』 (www.cbck.or.kr).

* 가톨릭계 전문대학을 제외한 통계임.

** 교수 수는 성직자, 수도자 교수를 제외한 수임.

5) 가톨릭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학생생활상담』 20(2002)~25(2007);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인간이해』 22(2001)~28(2007);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상담센터, 2001~2006학년도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원종철, 「가톨릭 대학의 존재 이유」, 『가톨릭 신학과 사상』 60(2007), p.290를 수정하여 재인용).

가톨릭 대학이 가톨릭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수의 가톨릭 신자들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Ex Corde Ecclesiae*(이하 ECE로 표기함)의 2부 4조에서는 가톨릭 대학교가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톨릭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가톨릭 신자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비가톨릭 교수의 수효가 대학교나 고등 교육기관의 가톨릭적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제도 내에서 다수를 이루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⁶⁾ 물론 가톨릭 대학은 다른 그리스도 교회나 다른 종교에 속하거나, 혹은 어떤 종교도 신봉하지 않는 구성원들에게 가톨릭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학 교직원과 학생들은 대학교의 특유한 가톨릭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들이 대학의 가톨릭 정체성을 잘 이해하고 기꺼이 대학의 종교적 특성을 살리도록 참여하도록 하는 일은 가톨릭 대학의 경영진들이 노력해야 할 작업이다. 사실 가톨릭 대학의 가톨릭 정체성을 자발적으로 증진시킬 의지와 능력을 지닌 교수들을 충원하고 교육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2. 「가톨릭대학교에 관한 교황령」의 개관

1) 배경과 구성

1979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회 대학과 대학교(the ecclesiastical faculties and institutions)를 위한 교황령 「그리스도교적 지혜」(*Sapientia Christiana*)를 반포한 바 있다. 그로부터 11년 후인 1990년 8월 15일에 새로운 교황 문헌 「가톨릭교회를 위한 교황령」(*Ex Corde Ecclesiae*)을 반포하였다. 이 문헌이 염두에 두고 있는 청중은 가톨릭 대학교와 그곳에서 종사하는 모든 대학 구성원들로서, 가톨릭 대학의 총·학장들, 대학교 공동체들, 또 대학교에 관계하는 주교, 수도회 및 교회 기관, 그리고 고등교육을 위해 일하는 모든 평신도들이다.⁷⁾

이 문헌의 개정작업에 깊이 관여했던 앨리스 갈린(Alice Galin) 수녀에 따르면, 1980년부터 바티칸 교육성성은 가톨릭대학교의 정체성을 밝히는 작업을 시작하였다.⁸⁾ 『1983년 교회법전』 제807조에서 제814조까지를 재해석한 초기 문헌이 완성되었고, 이를 1985년에 바티칸 교육성성은 다시 새로이 마련한 개정안을 회람하여 전 세계 대학교육 관계자들 650명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그리고 이 회신들에 나타난 피드백을 검토하여 여러 차례 수정작업을 거쳐 마침내 1990년에 본 문헌이 반포되었다. <표 4>는 ECE의 내용 구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6) ECE II, 4조 4항.

7) ECE I, 9, 10, 11항

8) 이 작업에 관하여, A. Galin, *American Catholic Higher Education: Essential Documents, 1967-1990* (South Bend: University of Notre Dame, 1992) 참조.

〈표 4〉 「가톨릭 대학교를 위한 교황령」의 구성

서문(1-11항)	
제1부 정체와 사명	제2부 일반적 규범
A. 가톨릭 대학교의 정체	제1조 일반적 규범의 근본 성격
1. 본질과 목표(12-20항)	제2조 가톨릭 대학교의 본질
2. 대학교 공동체(21-26항)	제3조 가톨릭 대학교의 설립
3. 교회 내의 가톨릭 대학교(26-29항)	제4조 대학교 공동체
B. 가톨릭 대학교의 봉사 사명(30항)	제5조 교회 내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1. 교회와 사회에 대한 봉사(31-37항)	제6조 사목적 봉사직
2. 사목적 봉사직(38-42항)	제7조 협력
3. 문화와의 대화(43-47항)	제8조 - 제11조 잠정적 규범
4. 복음 선교(48-49항)	결론

ECE의 본문은 제1부(ECE I) 과 제2부(ECE II)로 나누어져 있다. ECE I은 가톨릭 대학에 관한 신학적 기초를 설명한 것으로서, 다시 가톨릭 대학의 정체성과 봉사 사명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ECE는 가톨릭 대학의 정체성에 대하여 본질과 목표, 대학교 공동체, 교회 내의 가톨릭 대학교라는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뒤, 둘째 부분인 가톨릭 대학교의 봉사 사명에 관해서는 교회와 사회의 봉사, 사목적 봉사직, 문화와의 대화, 그리고 복음 선교에 대해 네 부분으로 나누어 요약하고 있다. 제2부 ‘일반적 규범’(general norms)은 ECE I의 구체적 적용을 위해 마련한 법적 조항으로서 총 10조로 구성되었다. 각 조는 일반적 규범의 기본 성격(제1조), 가톨릭 대학교의 본질(제2조), 가톨릭 대학교의 설립(제3조), 대학교 공동체(제4조), 교회 내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제5조), 사목적 봉사직(제6조), 협력(제7조), 잠정적 규범(제8조~제11조)로 이루어져 있다.

2) 중요 개념

가톨릭 대학의 교육이념을 ECE를 중심으로 논하기에 앞서 이 글에서 등장하는 가톨릭 대학에 관한 ‘가톨릭 대학’과 ‘교회’의 개념에 대하여 간략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글에서 언급되는 ‘가톨릭 대학’이란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 권위에 의해 직접 혹은 승인과 동의 절차를 거쳐 설립된 대학교를 말한다. 이 용어는 가톨릭계 단과대학, 종합대학을 포함하며, 국가정부의 어떤 법적 규정을 따랐든 상관없이, 교황청, 지역 주교회의, 단일 교구, 수도회, 혹은 평신도가 설립하고, 인류 문화의 발전과 개인 인격의 향상 그리고 교회의 교도 사명을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을 지칭한다.⁹⁾ 따라서 사도좌에 의해서만 설립·승인되며, 오로지 계시진리에 입각한 거룩한 학문들을 전수하는 교회 대학교와 교회 대학(신학교 포함)¹⁰⁾은 이 글의 논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CIC)』(1983. 1. 25 반포)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6), 제807조.

둘째, 이 글에서 말하는 ‘교회’의 개념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일차적으로 교회법 안에서 규정하는 제도적 ‘교도권’을 의미하며, 이는 교황, 주교회의, 공의회, 교구장 및 기타 교회의 권위를 말한다.¹¹⁾ 왜냐하면 가톨릭 대학은 교도권으로부터 생겨났고 그들의 사명을 수행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를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백성’(people of God) 혹은 ‘하느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 정의한다.¹²⁾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이해하는 것은 개념의 개연성을 넓히고 또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톨릭 대학은 ‘가톨릭 전통’(Catholic traditions)을 따른다고 말할 때, ‘가톨릭 전통’ 역시 공식적 교회의 교부이나 교도권의 손에 맡겨진 전통 혹은 가르침에만 국한 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인 교회 공동체가 말과 행동의 증거로서 전수해온 모든 신앙적 전통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¹³⁾

3. 가톨릭 대학의 본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문헌을 통해서, 가톨릭 대학들은 세상에 탄생하여 교회와 인류의 선익을 위해 사심 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지식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천명하였다.¹⁴⁾ ECE는 가톨릭 대학의 본질을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하나는 가톨릭 대학이 ‘일반’ 대학으로서, 또 다른 하나는 ‘가톨릭’ 대학으로서 정체성을 지닌다고 본다.

1) 가톨릭 대학의 ‘일반적’ 본질

모든 대학에 스며있는 가톨릭 유산은 역사상 대학 제도가 탄생했던 시기로 소급될 만큼 오래된 전통을 지니고 있다. 대학이 생기기 전 중세까지의 교육은 교회 내에서만 이루어졌다. 12세기까지 읽기와 쓰기를 배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성직자와 수도자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전례를 거행할 때 필요한 경문을 읽을 줄 알아야 했고 성경이나 신학 서적을 베껴 쓰는 일을 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2세기 이후에 아랍문명의 도입과 함께 지적 지평이 확대되고 교황권에 대립하는 왕족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배움의 욕구가 점차 커졌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배움을 위해 물려간 곳이 교구 학교인 cathedral school들이었다. 그리고 점차 교구 학교들이 커지면서 대학으로

10) 위의 책, 제815-816조.

11) 위의 책, 제749조 참조.

12) C. M. LaCugna, “Theological Reflections on Ex Corde Ecclesiae”, Hesburgh, T. M., *The Challenge and Promise of a Catholic University*(South Bend, IN: University of Notre Dame, 1994), p.204.

13) C. S. Lent, “Becoming a Great Catholic University”, Hesburgh, 위의 책, pp.141-152; R. P. McBrien, “What is a Catholic University?”, Hesburgh, 위의 책, pp.153-163.

14) ECE I, 1항.

발전하게 되었다. 이 때 생겨난 대학들이 이탈리아의 the University of Bologna(1088), 프랑스의 the University of Paris (1150), 영국의 the University of Oxford(1167), 스페인의 the University of Palencia(1208), 영국의 the University of Cambridge(1209), 그리고 스페인의 the University of Salamanca(1218) 순이다.¹⁵⁾

대학을 지칭하는 university는 라틴어 *universitas magistrorum et scholarium*에서 유래한 것으로써, 이는 대략 ‘선생과 학생의 공동체, community of teachers and students’로 번역되는 의미이다.¹⁶⁾ 대학은 교사와 학생들이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진리의 추구하고 진리의 전달을 수행하는 장소이다. ECE I, 2항에서, 교황은 대학이 진리를 열성으로 추구하고 또 진리를 후대 세대를 위해 편견 없이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학생활은 진리를 열렬히 추구하는 것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또한 올바르게 행동하고 인류에게 보다 훌륭히 봉사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사유하기를 배우는 모든 이에게 사심 없이 진리를 전달하는 것으로 특징지워진다.¹⁷⁾

ECE 12항은 일반 대학으로서의 가톨릭 대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모든 가톨릭 대학교는 하나의 대학교로서 엄중하고 비판적 방식으로 탐구 및 교수 활동을 통하여 그리고 지역·국가·국제 공동체에 제공하는 다양한 봉사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 및 문화적 유산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학문 공동체이다.¹⁸⁾

2) 가톨릭 대학의 ‘교회적’ 본질

한편 가톨릭 대학은 그 탄생부터 ‘교회의 심장부로부터’(Ex Corde Ecclesiae)¹⁹⁾ 발생하여 교회에서 성장하고 교회의 사명에 봉사하는 ‘가톨릭’ 교육기관이다. 즉, 가톨릭 대학은 일반 대학이면서 동시에 가톨릭 대학으로서 가톨릭 사상이 대학 공동체 안에 현존하고 작용하는 연구 기관이다. ECE 14항은 다음과 같이 가톨릭 대학의 본질을 설명한다.

모든 대학교에 공통되는 교수, 탐구, 및 봉사 이외에 가톨릭 대학교는 제도를 통한 봉사 활동으로써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영감과 빛을 자기 사명 안에 충분히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가톨릭 대학교 내에서는, 가톨릭적 이상과 태도와 원칙들이 대학 활동의 고유한 특성과 자주성과 일치하여 대학 활동 내에 주입되고 스며들어야 한다.²⁰⁾

15) “University” 위키백과사전. <<http://en.wikipedia.org/wiki/University>, 2010. 3.30.>

16) 위의 글.

17) ECE I, 2항.

18) 위의 문헌, 12항.

19) 위의 문헌, 1항.

20) 위의 문헌, 14항.

가톨릭 대학이 자신의 가톨릭 특성을 대학의 제도, 정책, 교육목표 안에서 잘 드러낼 때, 그리고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와의 긴밀한 유대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 봉사할 때 본연의 존재 목적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²¹⁾

이런 의미에서 가톨릭 대학의 교육 이념은 자체로 중립적일 수 없다. 또한 교육 과정과 교육 방법, 교육 평가 역시 가톨릭 진리를 반영하고 이에 봉사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에서 통합시켜야 하며, 대학의 교수들 역시 철학과 신앙의 빛을 받아 자신의 과학적 학문 탐구를 수행해야 한다.

교황은 가톨릭 대학의 모든 연구 활동이 반드시 인식의 통합, 신앙과 이성간의 대화, 도덕적 관심, 그리고 신학적 전망이라는 네 가지 관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²⁾ 이 관점들은 다음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인식의 통합이다. 오늘날 학문 영역은 지식의 팽창과 함께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학문 간의 대화와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방향성을 상실해 간다. 사실 학문 연구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에 따라 살도록, 그리하여 인간의 보편적 복지가 증대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학문 연구는 자칫 학문의 궁극적 목적을 망각한 채, 각 학문의 이기주의와 고립화를 초래할 수 있다. 가톨릭 대학은 이런 학문 간의 단절과 파편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철학과 신학의 도움을 받아 참다운 진리 혹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다양한 학문들을 통합하고, 각 학문들이 서로 자신의 위치와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위대한 가치관과 세계관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²³⁾

둘째, 신앙과 이성의 대화이다. 가톨릭 대학은 인간 이성과 종교적 신앙이 어떻게 충돌 없이 통합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각 학문은 자신의 고유한 특성과 방법론을 지니고 있고 하문의 자유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교황이 이 문헌에서 확신하는 바는 각 학문들이 과학적 지식의 추구가 도덕적인 규범과 일치할 때엔 신앙이 추구하는 바와 결코 충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런 이성과 신앙의 상호작용은 진리에 대한 더 큰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인간 생명과 하느님의 창조 목적에 더 잘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⁴⁾ 이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표현처럼 ‘은총이 자연에 의지하고 자연을 완성시키듯이, 신앙은 이성에 의존하고 이성을 완성’²⁵⁾ 하는 것이다.

셋째, 도덕적 관심이다. 가톨릭 대학은 대학 구성원들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연구의 방법과 결과에 대해 인간의 윤리적·도덕적 의미를 판단해야 한다. 즉, 그것들이 생명 존중과 인간 발전과 행복을 저해하는지 아니면 증진시키는지를 늘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한

21) 가톨릭 교육성, 「대학 문화와 교회 활동」, 최영희 옮김,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10(1999), 189-210쪽.

22) ECE I, 15항.

23) 위의 문헌, 16항.

24) 위의 문헌, 17항.

25) 위의 문헌, 17항; 김응태, 「오늘날 가톨릭 대학교수의 역할」, 『종교교육연구』 12(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191쪽에서 재인용.

다. 교황은 말하기를, 가톨릭 대학은 ‘기술보다는 윤리’, ‘사물보다는 인간’, ‘물질보다는 정신’의 우월성에 대해 확신을 갖고, 교수들이 과학적 발견보다는 인간 인격과 하느님의 초월성을 인식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²⁶⁾

마지막으로, 신학적 전망이다. 가톨릭 대학은 대학 내의 모든 학문 연구에 있어 ‘신학적 전망’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신학은 성서와 성전 그리고 교회의 교도직에 충실한 방식으로 인간 생명의 의미를 밝혀주고 인간의 품위를 높이도록 도와준다.²⁷⁾ 신학은 학문들로 하여금 연구 결과가 인간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피도록 도와주며, 전체성 안에서 학문의 방향과 전망을 보여준다.²⁸⁾ 연구뿐 아니라 학생 교육에 있어서도, 신학은 학생들이 여러 학문들을 연결하는 유기적 세계관을 지니게 해주고 보다 수준 높은 지적 추구에 대한 염원을 갖게 해 준다.²⁹⁾

4. 가톨릭 대학의 특성

가톨릭 대학이 지닌 일반적 본질과 가톨릭적 본질로부터 가톨릭 대학은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ECE I, 13항은 가톨릭 대학이 지녀야 할 특성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대학교 전체에 그리스도교적 영감이 충만해야 하며; 둘째, 학문 연구와 교육이 신앙의 조명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을 존중하고 따르며; 마지막으로, 인류와 신자들의 초월적 유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이 네 가지 특성을 비취 볼 때, 가톨릭 대학교는 연구, 교육, 봉사를 함에 있어서 교회와 깊이 일치하는 가운데, 대학 공동체의 제도와 구성원들이 그리스도교의 영감을 충분히 반영시켜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톨릭 대학의 특성을 ‘대학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 공동체로서의 특성이란 가톨릭 대학의 구성원들이 일반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연구, 교육, 봉사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정신을 바탕으로 참 진리에 헌신하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며, 사랑과 자유의 학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한편, 교회 공동체로서의 특성이란 교회의 가르침과 전통을 존중하고 이에 일치하면서 교회의 사명과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말한다.

1) ‘대학 공동체’로서의 특성

가톨릭 대학은 그리스도 정신과 그리스도교 메시지에 영감을 얻고 연구와 교육과 봉사

26) 위의 문헌, 18항; ECE II, 4조 3항.

27) 위의 문헌, 20항.

28) 위의 문헌, 19항.

29) 위의 문헌, 20항; ECE II 4조 5항.

를 수행하는 학문 공동체이다. 이런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빛 안에서 가톨릭 대학 공동체는 진리 추구하고 인간 존중에 대한 일치된 생각을 공유하고 이에 공동으로 헌신하게 된다.³⁰⁾ 그 결과, 가톨릭 대학 공동체는 한낱 지식 전달이나 직업 훈련을 위한 하찮은 장소로 전락하지 않고, 대신에 진정한 자유와 사랑의 정신으로 활력이 넘치고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진리 추구가 자연스러우며 다양한 문화의 열린 대화가 가능한 대학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대학 문화를 조성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는 대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인 교수, 학생, 그리고 총·학장과 경영인들은 대학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가능해 진다.

① 대학 교수

먼저, 대학 교수는 가톨릭 대학의 공동체적 특성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가톨릭 대학의 특성은 근본적으로 그곳에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교수들의 자질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³¹⁾ 대학 교수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 있어 학문적 전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가톨릭 대학의 발전, 나아가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다. 특별히 가톨릭 신자 교수들은 자신의 생활과 신앙, 전문적 지식과 그리스도교의 진리 사이에 확고한 통합을 이뤄내야 할 사명을 지닌다.³²⁾ 이런 개인적 통합의 모범을 통하여 가톨릭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지평을 열어주고, 학생들이 지닌 삶의 기준과 확신 그리고 삶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물음에 확고한 대답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이런 교수들의 사도직은 그들이 교회에 충실할 때 더 많은 결실을 맺는다. 즉, 이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가톨릭의 정체성과 교의에 일치하고 또 자신의 생활로서 증명될 때 그들의 사도직은 더욱 빛난다.³³⁾ 이런 사도직을 수행할 교수들의 확보는 가톨릭 대학 공동체가 경주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ECE II(일반적 규범)은 자질과 능력을 갖춘 가톨릭 교수 확보를 위한 대학 공동체의 책임 관하여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톨릭 정체성을 자발적으로 증진시킬 열정이 있고 또 그런 능력을 갖춘 교수들을 충원해야 하고; 둘째, 임명 때 가톨릭 대학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발전시킬 책임에 대해 잘 알도록 해야 하며; 셋째, 교수의 연구와 교육이 가톨릭 교리와 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넷째, 가톨릭 정체성 유지를 위한 적절한 수의 가톨릭 신자 교수들을 확보해야 한다.³⁴⁾

30) 위의 문헌, 21항.

31) 『대학 문화와 교회 활동』, 203쪽.

32) ECE I, 22항.

33) 『대학 문화와 교회 활동』, 208쪽.

34) ECE II, 4조 1-4항.

② 학생

가톨릭 대학은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에 따라 학문적 훈련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진리와 의미를 추구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서 이들이 책임 있는 직업인, 내일의 유능한 지도자, 그리고 신앙의 증거자가 되겠다는 열정을 키우도록 도와주어야 한다.³⁵⁾

그래서 가톨릭 대학은 학생들이 학문적·직업적 전문성과 함께 그리스도교의 인간관에 부합하는 종교적·윤리적 가치들을 지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³⁶⁾ 이를 위해 가톨릭 대학은 훌륭한 종교교육과 가톨릭 정신에 입각한 교양 교육을 제공하고, 또한 사랑과 배려 가득한 교수-학생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종교교육은 가톨릭 대학의 영예이며 책임이다.³⁷⁾ 왜냐하면 가톨릭 대학은 종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진리의 근원을 맛보고 진리에 헌신하는 온전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이성과 신앙, 생활과 영성이 통합된 전인적 인격형성이다.³⁸⁾ 가톨릭 대학은 신학적 지식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입학한 학생들에게 그리스도교 진리에 입각한 종교적 학과목과 전례, 성사, 교리교육 등 종교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가톨릭 대학의 교양교육은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중세 대학이 오늘의 가톨릭 대학에 남긴 중요한 유산 중 하나는 온전하고 풍요로운 정신성을 소유한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다. 중세 대학의 자유 과목(liberal arts)은 무지, 지식의 편협성, 편견, 그리고 판단의 오류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며, 결과적으로 자유 교육을 받은 이들은 이런 지적 어둠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마음, 자유로운 지성,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이다.³⁹⁾ 이처럼 오늘날의 가톨릭 대학은 그리스도 정신에 입각한 교양교육을 통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분별력, 판단력, 비판력을 지닌 학생, 그리고 바른 세계관과 윤리관, 가치관과 인생관을 지닌 인격을 양성해야 한다.⁴⁰⁾

교수와 학생들이 형성하는 인격적이고 개별적인 관계는 가톨릭 대학이 지닌 특성 중 하나다. 학생과 교수는 단순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가 아니다. 그들은 지식을 넘어서 진리를 사랑하고 탐구하는 기쁨(*gaudium de veritate*)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collegio*)이다.⁴¹⁾ 이는 일찍이 교황 비오 12세가 교사와 학생의 이상적인 관계, 즉 영혼과 영혼의 관계를 설명한 연설에서 뚜렷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35) ECE I, 23항.

36) 『대학 문화와 교회 활동』, 201쪽.

37) ECE I, 4항.

38) 최준규, 『가톨릭계 학교의 종교교육: 개념, 목적, 방법』, 『종교교육학연구』 21(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12), 316쪽.

39) 조무남, 『자유교육; 교양교육; 일반교육』,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편), 『교육학대백과사전』(서울: 하우동설, 1998), 2227쪽(원종철, 앞의 글, 285쪽에서 재인용함).

40) 원종철, 위의 글, 287쪽.

41) ECE I, 1항.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상의 호칭입니다. 교사의 기능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지닌 기능보다 훨씬 높고 깊은 차원을 지닙니다. “교사”는 어떻게 자신과 학생의 영혼이 맺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이 진리와 덕을 형성하도록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는 아이들의 지적 능력을 형성하고 나아가 아이들이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완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⁴²⁾

③ 총 · 학장 및 경영인

가톨릭 대학의 총 · 학장과 이사진 · 경영인들은 가톨릭 정체성을 보전하고 강화할 책임을 지닌 이들이다. 비록 교수와 직원 또는 학생들이 정도에 따라 조금씩 그 책임을 나눠 맡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높은 지위 권력을 지닌 그들이 그 일차적 책임자들이다.⁴³⁾ 그들은 봉사의 사도직을 통해 대학 공동체의 항구적 성장을 촉진하고 대학의 정체성과 생활을 통해 헌신과 증거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⁴⁴⁾

④ 수도회

전 세계의 수도회는 가톨릭 고등교육의 주체로서 많은 가톨릭 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⁴⁵⁾ 남녀 수도회들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교 정신과 수도회의 고유한 카리스마에 입각하여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여 그들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며, 가톨릭 정신이 투철한 교수들을 양성하여 교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그들은 가톨릭 고등교육의 오랜 전통의 산증인이며, 그 전통에서 나온 수도회의 풍요로운 경험과 노하우는 교회의 큰 자산이다. 수도회들은 항상 새로운 열정과 헌신으로 가톨릭 대학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나아가 이 과업을 계속 이어나갈 남녀 수도자들의 양성에 노력을 해야 한다.⁴⁶⁾

⑤ 평신도

교수와 직원으로 봉직하는 평신도들은 교회 내에서 뿐 아니라 가톨릭 대학 안에서 중요한 사도직을 담당하는 이들이다. 더욱이 오늘날 대부분의 가톨릭 대학은 주로 평신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의 규모가 커지고 기능이 세분화 · 전문화됨에 따라 평신도들이 대학의 중요한 부문에서 책임을 맡고 있다. 이들은 문화의 특별한 장소인 학교와 대학 안

42) Pius XII, “The Catholic Teacher”(4 Nov 1955), *Education: Papal teachings*, Trans by A. Rebeschini (St. Paul Editions, 1960), p.514.

43) ECE II, 4조 1항.

44) 최준규 외, 『가톨릭고등교육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가톨릭대학교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26(한국종교교육학회, 2008.2), 202쪽.

45) ECE I, 25항.

46) 위의 문헌

에서 교회의 사명에 봉사하면서 지성적 창의력과 헌신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점차 가톨릭 대학의 미래요 희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가톨릭 대학의 성패는 그들의 능력과 헌신에 의지하게 되었다.⁴⁷⁾

⑥ 타종교 구성원

가톨릭 대학 공동체 안에는 타교회, 타교회 공동체와 타종교 구성원들 그리고 어떤 종교도 신봉하지 않는 이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가톨릭 대학의 사명을 완수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며 여러 분야에서 대학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⁴⁸⁾ 가톨릭 대학은 이들의 신앙을 존중할 뿐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신앙과 일치하여 성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⁴⁹⁾ 반면, 타종교인 혹은 무종교인 비가톨릭 교수, 직원, 학생들은 가톨릭 대학의 특별한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비가톨릭 구성원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가톨릭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⁵⁰⁾

2) ‘교회 공동체’로서의 특성

① 교회와의 일치

모든 가톨릭 대학은 보편 교회 및 교황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⁵¹⁾ 왜냐하면 가톨릭 대학은 본질적으로 교회로부터 탄생하여 교회의 보호를 받고 교회의 사명을 고등 교육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써 수행하기 때문이다. 가톨릭 대학은 지역 교회에 의해 학문의 발전과 인간 품위의 향상 그리고 교도권의 원활한 수행을 돕기 위해 설립되고 운영된다.⁵²⁾ 가톨릭 학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의 교구장의 감독과 후원을 받는다.⁵³⁾ 반면 가톨릭 대학은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를 위해 자신의 고유 기능인 연구, 교육, 봉사를 통해서 교회의 생활과 사명에 공헌하며, 이로써 교회와 자신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

교회에 대하여 가톨릭 대학이 맺는 일치의 정신은 대학의 제도적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신앙과 도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회의 교도권을 인정하고 승복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이런 신앙과 도덕 문제에 관한 가톨릭 대학의 교회에 대한 순명과 충성의 요구는 대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즉 경영진, 교수, 직원, 학생에게 적용되며, 나아가 비가톨릭 구성원에게도 역시 적용된다. 비가톨릭 구성원들은 대학이 그들의 종교

47) 위의 문헌

48) 위의 문헌, 26항.

49) 위의 문헌, 39항.

50) ECE II, 4조 4항.

51) ECE I, 27항; ECE II, 5조 1항.

52) 『교회법전』, 제807조.

53) 위의 책, 제809조.

적 자유와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만큼, 대학의 가톨릭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⁵⁴⁾

② 주교의 책임

주교들은 가톨릭 대학을 설립, 운영, 후원, 감독할 책임을 지닌다.⁵⁵⁾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역 안에 적절한 수의 대학을 설립하고 필요한 학과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가톨릭 정신에 따라 대학이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을 하고, 국가 정부의 불필요하고 지나친 간섭으로부터 대학을 보호해야 한다. 서구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19세기 이후 국가 권력이 모든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제거하는 교육법을 제정하고, 국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주도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가톨릭 교회와 정부 권력은 갈등을 겪곤 하였다.⁵⁶⁾ 당시 교황이었던 비오 9세(1846~1878)와 후임 교황 레오 13세(1878~1903)를 걸쳐 역대 교황들은 지역 주교회의들과 함께 국가권력의 무리한 간섭에 대해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을 옹호하여 왔다.⁵⁷⁾

이처럼 주교들, 특히 지역교회의 교구장들은 가톨릭 대학의 이사회나 경영진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을 때라도, 가톨릭적 특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지역 주교회의 혹은 교황청과 협력하여 대화와 협력으로써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⁵⁸⁾ 이와 관련하여 각 가톨릭 대학은 대학의 현황과 주요 안건 그리고 성과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회의 관할권자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⁵⁹⁾

③ 학문의 자유

가톨릭 대학과 그 옹호자인 주교의 역할 중 하나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일이다. 이 학문의 자유란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하나는 가톨릭 대학 내의 학자들이 누리는 가르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의 자유를 말하며, 다른 하나는 교회와 가톨릭 대학의 구성원들이 국가 공권력이나 사회적 관행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진리와 공동선을 위해 연구하고 연구한 것을 발표할 자유를 의미한다.

교회는 인간 문화와 과학의 타당한 자유성을 존중하고 각 학문의 고유한 원리와 방법을 통하여 진리와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학자들의 학문적 자유(academic freedom)를 인정해야 한다.⁶⁰⁾ 학문의 자유이란 개념은 1850년 경 독일 헌법이 학생, 교수, 대학의 자율성

54) ECE I, 27항.

55) 『교회법전』, 제807조, 제809조.

56) Richard M. Jacobs, O.S.A. *The vocation of the Catholic educator*(Washington, D.C.: The National Catholic Educational Association, 2001), p.27.

57) 위의 글, pp.27-29.

58) ECE II, 5조 2항.

59) 위의 문헌, 5조 3항.

을 인정하여 어떠한 국가적, 사회적, 종교적 간섭을 받지 않고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며 대학을 운영할 권리를 강조하면서 구체화 되었다.⁶¹⁾

그러나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는 한 개인 교수의 무제한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자유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하는 자유이며, 진리와 공동선의 테두리에서 인정받는 것이며,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유용성 안에서 용인되는 것이다.⁶²⁾ ECE I, 12항은 학문적 공동체로서 가톨릭 대학 안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가톨릭 대학교는 자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도적 자율성을 지니며, 개인과 공동체의 권리 행사는 진리와 공동선의 범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대학 내 구성원들에게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다.

또한 교회의 교도권은 가톨릭 대학 내 교수들의 학문의 자유를 보장할 뿐 아니라, 대학 밖에서 가톨릭 대학의 구성원들이 진리와 인간 선익과 공동선에 기여하는 연구를 자유롭게 수행하고 발표할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ECE I, 37항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가톨릭 대학교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많은 기관들 중 하나이며, 사회와 세계 안에서 연대성과 그 의미를 촉진시킬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가톨릭 대학교가 시민사회와 공권력이 자신의 조직적 자주성과 학문적 자유를 인정해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5. 가톨릭 대학의 사명

가톨릭 대학의 교육과 연구는 봉사를 통해 교회와 지역사회, 국가와 세계로 연결되며, 대학과 그 구성원이 갖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게 된다. 그러나 가톨릭 대학은 자신의 고유한 본질과 특성에 의해 봉사의 사명을 수행하며⁶³⁾ 따라서 다른 일반 대학이 하는 봉사

60) ECE I, 29항.

61) “academic freedom” 브리태니카 온라인 <<http://www.britannica.com/EBchecked/topic/2591/academic-freedom>, 2011. 2.15 인출>

62) 이에 대해서 원종철, 앞의 글, 301-303쪽 참조. “1940년에 미국대학교수협회(the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가 발표한 학문의 자유의 관련한 보고서 “Statement of Principle on Academic Freedom and Tenure”은 학문의 자유에 관하여 대학 당국과 교수 개인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교수는 연구와 발표의 자유를 보장 받지만, 대학에서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서 연구에 대하여 대학 당국의 이해를 얻어야 하며, (2) 대학이 종교 등 기타 목적에 의해 학문의 자유에 제한을 가할 경우엔 교수 임용 때 미리 문서로 밝혀야 하며, (3) 한 시민으로서 교수는 어떤 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니고 있으나, 교수라는 특별한 지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발언하되, 개인적 소신은 대학의 공식적 견해와 무관하다는 점을 일반에게 알려야 한다.”

와는 다른 측면의 봉사를 실천한다. ECE는 가톨릭 대학의 사명을 교회와 사회에 대한 봉사, 사목적 봉사, 문화와의 대화, 복음 선교 등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1) 교회와 사회에 대한 봉사

가톨릭 대학은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하여 교회와 사회에 다음과 같은 유용한 도움을 제공한다.⁶⁴⁾ 첫째, 가톨릭 대학은 그리스도교의 원리로부터 영감을 받아, 사람들로 하여금 성숙되고 책임 있게 자신의 신앙적 소명을 따라 살도록 함으로써 미래에 교회 안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할 지도자들을 준비시킨다. 나아가 가톨릭 대학은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교회에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교회가 이 시대의 문제와 필요에 효과적으로 응답하도록 도와준다.⁶⁵⁾

둘째, 가톨릭 대학은 사회가 보다 근본적인 - 표면적이 아닌 - 발전을 이루도록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 가톨릭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들은 인간생명의 존엄성, 정의 구현, 개인과 가정의 질적인 삶, 자연환경 보호, 평화와 정치적 안정, 자원분배의 공정성, 새로운 경제적·정치적 질서에 관한 문제들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수행된다. 이 연구들은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윤리적이고 신학적인 차원들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문제의 뿌리와 원인을 도출하는 것이다.⁶⁶⁾

셋째, 가톨릭 대학이 수행하는 교육과 연구는 현대 사회와 문화를 지배하는 가치들과 규범들에 의문을 품고,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검토하고 평가하여 인간 삶에 충만한 의미를 제공하는 윤리적·종교적 원칙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 역할을 통해 그리스도교 인간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⁶⁷⁾

넷째, 가톨릭 대학은 학생들에게 사회 정의에 대한 개념과 실천에 대해 설명해 줌으로써 그들이 온전하게 정의를 위해 투신할 수 있도록 양성해야 하며, 굶주림, 고통, 질병, 소외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활동할 양심적인 인재들을 배출해야 한다. 또한 가톨릭 대학은 지역 안에서 가난과 다른 이유로 교육적 소외계층으로 남아 있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나아가 교육적으로 열등한 나라의 교육을 도울 필요가 있다.⁶⁸⁾

그 밖에도, 가톨릭 대학은 학문간, 대학 간 - 특히, 세계의 가톨릭 대학들 간 - 연계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학문 세계를 넘어서 지역 사회의 학문적, 문화적, 과학적 이해와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계와 협력을 해야 한다.⁶⁹⁾

63) 위의 문헌, 30항.

64) 위의 문헌, 31항, 32항, 34항, 35항, 36항, 37항.

65) 위의 문헌, 31항.

66) 위의 문헌, 32항.

67) 위의 문헌, 33항.

68) 위의 문헌, 34항.

2) 사목적 봉사

가톨릭 대학이 헌신하는 둘째 영역은 사목적 봉사이다. 사목적 봉사란 대학 구성원들이 종교적 원리와 도덕적 원리를 자신의 학문 활동 및 비학문 활동에 접목시켜 신앙과 삶을 통합시키도록 도와주는 가톨릭 대학의 활동을 말한다.⁷⁰⁾ 이 사목적 봉사직은 가톨릭 대학 안에서 결코 주변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선 안 되며, 오히려 제도적 중심 분야이며 공동체적 핵심 업무로 이해돼야 한다. 왜냐하면 가톨릭 대학은 처음 태어나던 당시부터, 교회의 사목적 배려가 낳은 의미 있는 결실이기 때문이다.⁷¹⁾ 따라서 가톨릭 대학 공동체는 이 같은 사목적 차원이 대학의 모든 활동에 깊이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가톨릭 대학 내에서 가능한 사목적 봉사를 다음 몇 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다.

우선, 가톨릭 대학 내의 교목 활동을 통해 대학 구성원들에게 교회의 가르침과 교리, 그리고 영성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기도와 전례, 성사와 심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⁷²⁾ 또한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영성적 혹은 사도적 생활을 위한 다양한 모임과 운동들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⁷³⁾

둘째, 사목적 봉사를 통해 교수들과 학생들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한층 더 깊이 깨닫고 실제로 돌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⁷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목적 봉사는 가톨릭 학생들이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혼인과 가정의 가치를 깨닫고,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를 느끼며, 모든 활동을 복음 정신으로 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⁷⁵⁾

3) 문화와의 대화

연구를 통해 문화를 발전시키고, 교육을 통해 문화를 전수하며, 봉사를 통해 문화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가톨릭 대학의 ‘일반적’ 본질에서 파생된 것이라면, 문화 안에 깃들여 있는 가치를 식별하고 긍정적 요소를 발견하며, 신앙적 이해와 복음적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그의 ‘가톨릭’ 본질에서 파생된 것이다.⁷⁶⁾ 따라서 가톨릭 대학은 복음과 문화의 풍요로운 대화를 위한 일차적이며 특권적인 장소이다.⁷⁷⁾

69) 위의 문헌, 35-37항.

70) 위의 문헌, 38항.

71) 『대학 문화와 교회 활동』, 190, 200쪽.

72) 위의 문헌, 39항.

73) 위의 문헌, 42항.

74) 위의 문헌, 40항.

75) 위의 문헌, 41항.

76) 위의 문헌, 43-44항.

77) 위의 문헌, 43항

이 [문화와의] 대화를 통해서 가톨릭 대학교는 교회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것들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들을 식별해 내고, 그것들이 인간에게 진정으로 기여하고 있는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또 대화가 특정문화의 사람들이 신앙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방도들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해줌으로써 교회를 돕는다.⁷⁸⁾

비록 복음이 어느 특정 문화와 동일시 될 수 없으며 모든 문화를 초월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문화와의 대화를 통해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파된 근거는 얼마든지 있다. 우선, 사도 바오로는 교회 초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유대 사상, 그리스 사상, 로마 사상 같은 당시의 대표 문화들을 그리스도교 문화 안에 융합하였었고, 중세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교 중요한 신학적 개념 정립을 위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헬레니즘, 아랍 철학과 그 밖의 이교사상마저도 흡수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가톨릭 대학이 문화적 대화를 촉진할 때 주의할 점은 복음 문화 안에 흡수하려는 현대 문화들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 문화들이 인간의 인격, 자유, 존엄성, 책임감, 개방성과 가정의 우선적 존중, 그리고 교회와 세상의 일치에 기여하는지 여부이다.⁷⁹⁾

특히 가톨릭 대학이 공헌할 수 있는 분야는 현대 과학과 그리스도교 사상과의 대화인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학문 분야에 정통하면서 동시에 신학적으로 훈련을 받아 이성 과 신앙을 조화시킬 수 있는 신앙적 학자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들은 인간적 지성이 하느님의 말씀에서 비롯한 상위의 진리에 의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도 직을 수행하는 것이다.⁸⁰⁾

4) 복음 선교

가톨릭 대학은 본질상 교회의 일차적 사명인 복음 선교에 봉사하는 학문 공동체이다. 그래서 가톨릭 대학이 모든 활동은 교회의 복음 선교와 관련되어 있고 또 조화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학의 연구 활동은 새로운 발견을 통해 개인과 사회에 더 많은 봉사를 하라는 신앙적 명령과 연결되고, 교육 활동은 학생들이 합리적·비판적 판단을 내리고 인간의 초월적 존엄성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며, 직업 훈련은 윤리적 가치와 봉사 의식이 기반이 되고, 문화와의 대화는 신앙의 진리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된다.⁸¹⁾

교황 바오로 6세는 1977년 반포한 『현대의 복음 선교』에서 복음 선교를 설명하면서, 교회가 복음 선교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에 상반되는 인간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의 초

78) 위의 문헌, 44항.

79) 위의 문헌, 45항, 47항.

80) 위의 문헌, 46항.

81) 위의 문헌, 49항.

점, 사상의 동향, 사상의 원천, 생활양식 등을 복음의 힘으로 역전(逆轉)시키고 바로잡는 것이라고 하였다.⁸²⁾ 따라서 가톨릭 대학은 그 구성원들인 교수, 직원, 학생들이 그리스도교의 인간관에 적합한 가치들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그 해결책을 제시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⁸³⁾

〈표 5〉는 지금까지 논의했던 가톨릭 대학의 본질, 특성, 사명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표 5〉 가톨릭 대학의 본질, 특성, 사명

구분	주요 요소	하위 요소
본질	일반적 본질	· 교수와 학생의 학문 공동체 · 진리 추구하고 전달 수행 · 인간과 사회에 봉사
	교회적 본질	· 교회로부터 탄생한 공동체 · 교회 공동체와 그의 사명에 봉사 · 독특한 학문 방법론(인식의 통합, 이성과 신앙의 대화, 도덕적 관심, 신학적 전망)
특성	대학 공동체 특성	〈교수〉 · 학문적 전문성 향상 · 생활과 신앙, 지식과 진리의 통합 · 대학의 가톨릭 정체성 이해 및 발전 〈학생〉 · 학문적 지식과 직업적 전문성 훈련 · 대학의 종교교육, 교양교육, 윤리교육을 통한 종교·윤리적 가치 신장 · 교수와의 진리의 동반자 관계 형성 〈총·학장 및 경영인〉 · 대학의 지속적 성장과 정체성 유지의 책임 〈수도회〉 · 교회와 수도회 카리스마에 따른 대학 설립과 운영 · 가톨릭 정체성을 이해하는 교수 인력 양성 · 도덕성을 갖춘 뛰어난 인재 양성 · 열성과 능력을 갖춘 수도자 양성 〈평신도〉 · 가톨릭 정신과 연구 및 행정 전문성 신장 〈타종교 구성원〉 · 대학의 가톨릭 정체성 이해와 존중 · 비가톨릭 구성원의 적절한 비율 유지
	교회 공동체 특성	〈교회와의 일치〉 · 교회와 긴밀한 관계 유지 · 신앙과 도덕 문제에 관한 교회의 교도권 존중 · 교회의 생활과 사명에 공헌

82) 교황 바오로 6세, 『현대의 복음 선교』(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0), 19항.

83) 『대학 문화와 교회 활동』, 201쪽.

특성	교회 공동체 특성	<주교의 책임> · 대학의 설립, 운영, 후원, 감독의 책임 · 대학의 가톨릭 정체성 유지 책임 · 국가 및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정체성 보호 책임 · 학문의 자유 · 대학 내 학자들의 학문의 자유 인정 · 외부 세력으로부터 종교적 신념과 의견 표명의 자유 보호
		· 탁월한 학문적 발견과 발전 · 신학적 전망을 담은 연구 수행 · 사회적 가치와 규범에 윤리적·종교적 원칙 제시 · 정의감과 배려심이 가득한 미래의 지도자 교육 · 학문 간, 대학 간, 지역 간 연계 활동
사명	대학과 사회에 대한 봉사	· 종교·윤리적 원리를 학문적·비학문적 활동에 접목 · 교목활동(교리, 전례, 신심행사) · 소외계층에 대한 의식 고취 · 적극적인 교회 생활 및 참여 · 성소 계발
	사목적 봉사	·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 · 문화의 가치를 인간존중과 공동선의 기준으로 평가 · 학문적 전문성과 신앙의 진리를 통합할 학자 발굴, 양성
	문화와의 대화	· 교회의 복음화와 연결 · 개인과 사회에 더 많이 공헌할 연구 · 합리적·비판적 판단과 인간 존엄성을 인식하는 교육 · 윤리적 가치와 봉사 의식에 기초한 직업 훈련 · 신앙의 진리와 연결된 문화와의 대화
	복음 선교	

II. 결 론

오늘날 대학의 세계의 변화는 빠르다. 그 변화에 대해 대학들은 그 정당성을 반성할 여지없이 맹목적으로 대세를 따라 끊임없는 적응과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가톨릭 대학 역시 그 요구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일반 대학으로서 가톨릭 대학도 우수학생의 유치, 지원금 선점, 최고의 교수의 확보, 시설과 재원 확충을 통해 대학 간의 수월성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한다. 교육의 효과성, 학문적 수월성, 경영의 효율성 등은 가톨릭 대학에게도 경쟁력의 주요한 지표가 된다.

하지만 가톨릭 대학은 학문과 연구의 수월성을 담보하는 일 외에 중요한 또 다른 과업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가톨릭 대학의 ‘가톨릭’ 정체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다. 가톨릭 대학의 정체성은 교육 이념, 목표, 활동, 정책, 시설 등에 아로새겨져 있는 고유한 특성 같은 것이다. 정체성은 자신의 기원, 본질, 역사, 경험의 축적이며 표현이다.

가톨릭 대학의 교육 이념에 관한 고찰인 이 논문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반포한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1990)에 나타난 가톨릭 대학의 본질, 특성, 사명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가톨릭 대학의 본질은 일반적 본질과 교회적 본질로 나눠 고찰해 볼 수 있다. 일반적 본질이란 가톨릭 대학이 ‘일반’ 대학으로서 수행하는 진리의 추구하고 전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류 복지에 봉사를 뜻한다. ‘교회적’ 본질이란 가톨릭 대학의 존재와 사명의 원천인 교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학의 교육과 연구 활동이 참다운 진리와 신앙적 빛(조명) 안에서 인식의 통합, 이성과 신앙의 대화, 도덕적 관심, 그리고 신학적 전망이라는 관점을 통합한 실재로 보았다.

이런 본질적 고유성으로 말미암아 가톨릭 대학은 다른 비가톨릭 대학들과 차별되는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를 ‘대학 공동체’로서의 특성과 ‘교회 공동체’로서의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대학 공동체로서 가톨릭 대학 그리스도교 신앙의 빛 안에서 연구, 교육, 봉사를 수행하는 학문 공동체로 규정된다.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교수, 총·학장, 경영인은 탁월한 학문적 혹은 행정적 전문성을 신장시키되, 이를 신앙의 빛 안에서 통합하고, 개인적 삶으로 구현할 사명을 지닌 존재들이다. 학생은 자신의 소질에 따라 학문적·직업적 훈련을 하면서도 진리에 입각한 가치와 윤리성을 가진 유능한 인재로 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은 대학으로부터 훌륭한 종교교육과 교양교육을 교육받으며, 특별히 교수와 사제지간 이상의 깊은 소통을 갖게 된다.

또 교회 공동체로서 가톨릭 대학은 자신의 모태인 교회의 사명을 교육·연구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가운데 교회의 주교와 교도권의 감독과 후원을 받는다. 주교는 가톨릭 대학 내 학문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호하는 가운데 이것이 진리와 공동선과 윤리성 안에서 집행되도록 독려한다. 또한 정부 권력이나 불의한 힘에 의해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이 침해될 수 있을 때엔 가톨릭 대학을 자율성과 권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한다.

가톨릭 대학의 본질과 특성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사명으로 연결된다. 가톨릭 대학은 본성적으로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교회와 사회에 대한 봉사, 사목적 봉사, 문화와의 대화, 그리고 복음 선교가 포함된다.

교회의 심장부로부터 태어난 가톨릭 대학은 작은 교회이며, 탁월한 사목 현장이다. 그곳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인재들이 모여 있고 풍요로운 지식과 정보의 교환이 있고 지성과 신앙, 이성과 진리, 생활과 영성이 조우하는 자리이다. 학자들이 더욱 성숙하고 풍요로운 지식 체계와 발견을 쏟아내며, 건강하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미래의 리더로서 열성적인 준비를 하는 자리다. 가톨릭 대학은 교육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존재이다. 세상이 배금주의, 쾌락주의, 무한 경쟁주의로 치달아 가는 오늘날은 아이러니하게도 영원불변한 진리에 충실하며 인간 존중과 정의·평화가 넘치는 인류 복지를 위해 쉼 없이 노력하는 가톨릭 대학의 존재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간이다.

참고문헌

- 가톨릭 교육성. 「대학 문화와 교회 활동」. 최영희 옮김.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10.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9.
- 가톨릭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학생생활상담』 20(2002)~25(2007).
- 교황 바오로 6세. 이종홍 옮김. 「현대의 복음 선교」(1975.12.8. 반포).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0.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최영철 옮김.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63. 1990/12. 58-72쪽. (혹은 『가톨릭 신학과 사상』 16.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6/여름. 231-256쪽).
- 김응태. 「오늘날 가톨릭 대학교수의 역할」. 『종교교육연구』 12.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상담센터. 2001~2006학년도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 2001~2006학년도.
-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인간이해』 22(2001)~28(2007).
- 원종철. 「가톨릭 대학의 존재 이유」. 『가톨릭 신학과 사상』 60.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7.
- 조무남. 「자유교육; 교양교육; 일반교육」.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편). 『교육학대백과사전』. 서울: 하우동설. 1998.
- 최준규. 「가톨릭계 학교의 종교교육: 개념, 목적, 방법」. 『종교교육학연구』 21.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 최준규 외. 「가톨릭고등교육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가톨릭대학교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26. 서울: 한국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CIC)』(1983. 1. 25 반포).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6.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년 한국 천주교 통계』.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 Buckley, M. J.. "The Catholic University and the Promise Inherent in its Identity", Langan & O'Donovan (eds.). *Catholic Universities in Church and Society: A Dialogue on Ex Corde Ecclesiae*.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1993.
- Galin, A.. *American Catholic Higher Education: Essential Documents, 1967-1990*. South Band: University of Notre Dame. 1992.
- Jacobs, Richard M. O.S.A.. *The vocation of the Catholic educator*. Washington, D.C.: The National Catholic Educational Association. 2001.
- LaCugna, C. M.. "Theological Reflections on Ex Corde Ecclesiae". Hesburgh, T. M.. *The Challenge and Promise of a Catholic University*. South Band, IN: University of Notre Dame. 1994.
- Lent, C. S.. "Becoming a Great Catholic University". Hesburgh, T. M.. *The Challenge and Promise of a Catholic University*. South Band, IN: University of Notre Dame. 1994.

- McBrien, R. P., “What is a Catholic University?”. Hesburgh, T. M., *The Challenge and Promise of a Catholic University*, South Bend, IN: University of Notre Dame, 1994.
- Pius XII, “The Catholic Teacher”(4 Nov 1955), Trans by A. Rebeschini, *Education: Papal teachings*, St. Paul Editions, 1960.

원고접수 : 2011년 1월 21일 1차 심사 : 2월 1일 게재승인일 : 2월 13일

연구자 소개 : 최준규

① 전공 : 교육학, 교육행정, 종교교육 / 소속 : 가톨릭대학교

② 관심영역 : 종교교육, 가톨릭교육, 대학행정, 국제교육

③ 주요논저 : 「가톨릭학교교사의 영성」, 「가톨릭대학의 가톨릭 정체성」, 「대학의 국제화 전략」, 「가톨릭의 사제양성 원리와 실제」

④ E-mail : runnerchoi@catholic.ac.kr

Abstract

The Catholic University and its Catholic Identity

Choi, Jungui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Catholic identity of the Catholic university. Today, Catholic universities should have their goals, not only to pursue their educational effectiveness, excellence in research, and efficiency of management like other colleges and universities do, but also to reserve and develop their 'Catholic' identity. In 1990, Pope John Paul II published his canonical Constitution, 「*Ex Corde Ecclesiae*」 ('from the heart of the Church'). In the constitution, the Pope clarified the identity of Catholic universities in the world, and it also explained the nature, characteristic, and mission of the Catholic university, in the form of the Canon Law.

A Catholic university by the nature has its two characteristics: (1) the 'common' characteristic which is search for truths, transition and application of truths that are the same goals as those of non-Catholic universities, (2) the 'ecclesiastical' one which implement university's basic functions of education, research, and service according to light of faith and the Church's teachings. These essential nature of the Catholic universities take into account their four characteristics which are different from other universities. (1) Christian inspiration in individuals and the university community, (2) Reflection and research on human knowledge in the light of the Catholic faith, (3) Fidelity to the Christian message in conformity with the *magisterium* of the Church, and (4) Institutional commitment to the service of others. Thos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a Catholic university should be linked to its four missions for the good of the Church and our societies. That is, commitment to the Church and society, pastoral service, dialogue with other cultures, and evangelization.

Key words: Pope John Paul II, Identity of a Catholic University, Nature of a University, Characteristics of a University, Mission of a University